



# numbers

vol. 277

## X세대(1970년대생, 46~55세)의 현주소 X세대의 43%, 현재 부모와 자녀 동시에 부양중!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 ②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2025. 3. 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X세대의 43%, 현재 부모와 자녀 동시에 부양중!

대한민국에서 X세대는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베이비부머세대와 MZ세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사고방식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에서는 1970년대(2025년 기준 46~55세에 해당)에 태어난 세대를 X세대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경제적 실태뿐만 아니라, 가족·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X세대의 삶과 가치관을 집중 조명한다. 이들의 가족, 직장, 노후 등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난 넘버즈 246호의 주제인 ‘1960년대생’과 비교해 살펴보는 것도 추천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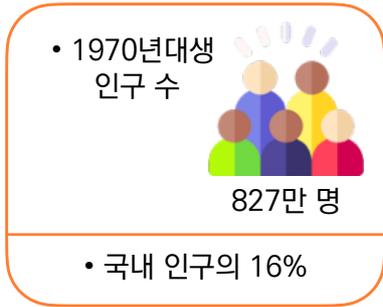
# 01

## [X세대 인구 비중] X세대(1970년대생, 46~55세), 국내 인구의 16%!

- 한국 나이로 대략 50세 전후인 1970년대생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하고, 산업화세대(1940~1954년)와 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4년생) 부모를 둔 세대이다. 베이비부머세대와 MZ세대 사이 낀 세대이기도 한 1970년생들은 2024년 12월 기준 827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로 100대 기업 기준 70년대생 임원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70년대생 인구 수 및 비중 (2024년 12월 기준)

[그림] 100대 기업의 70년대생 임원 비중 (2024)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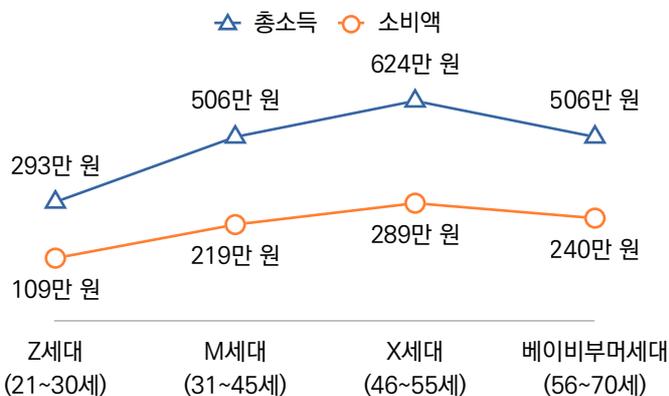
※출처 : 동아일보, 재계 1970년대생 임원들 급부상... "CEO 세대 교체 중", 2024.11.06.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6/130371208/1>)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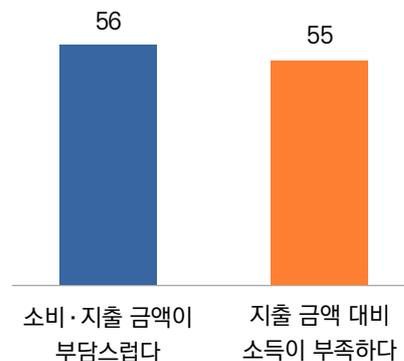
## [X세대의 경제와 재정상황] X세대,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벌지만 생활은 바듯!

- X세대(1970년대생)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일까? 세대별로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비액을 살펴본 결과, X세대의 가구 총소득은 624만 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고, 매달 지출되는 소비액(289만 원) 또한 가장 많았다. 총소득 대비 총지출 비율은 46%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 소득/지출에 대한 인식을 보면 X세대의 절반 이상이 매달 지출되는 금액을 부담스러워 했고(56%), 지출 대비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55%)고 느끼고 있었다.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 지출도 그만큼 커 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월평균 가구 총소득 및 소비액 (세대별)



[그림] X세대의 소득-지출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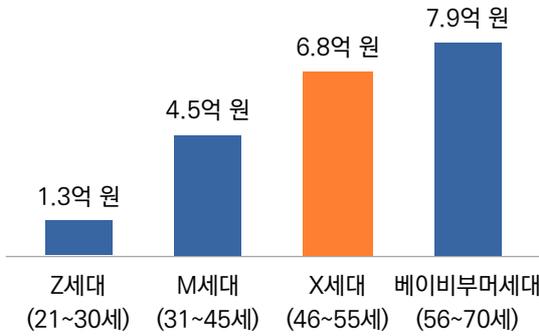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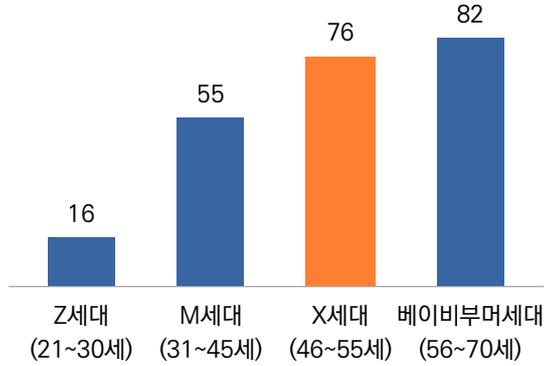
## X세대 가계 보유 총자산, 평균 6.8억 원!

- 가계 보유 총자산 규모를 세대별로 살펴본다. X세대는 6.8억 원으로 현재 20대인 Z세대(1.3억 원)보다 4배 이상 높고, M세대(4.5억 원)와도 2억 이상 차이를 보였다.
- ‘주택 보유율’의 경우 76%에 달해 X세대 4명 중 3명(76%)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가계 보유 총자산\* 규모



[그림] 주택 보유율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소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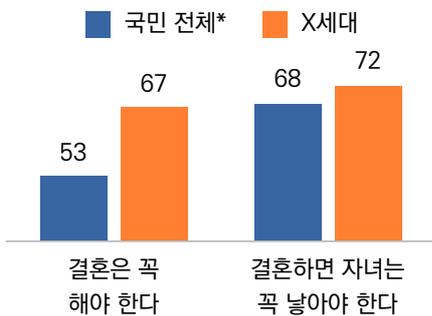
※출처: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산한 자산 총액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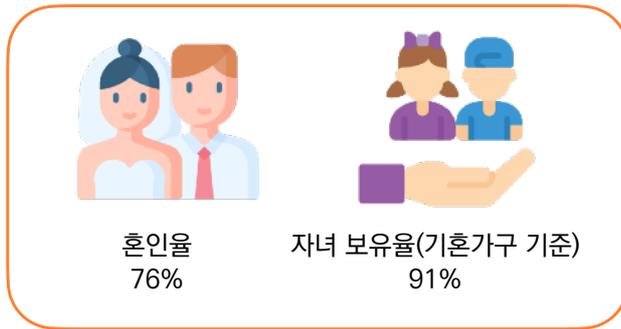
### [X세대의 가정과 삶의 만족도] X세대 3명 중 2명 이상, ‘결혼’과 ‘자녀’는 필수!

- 이번에는 X세대의 결혼, 자녀, 가족 관련 인식과 실태를 살펴본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와 ‘결혼하면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에 대한 X세대의 동의율은 각각 67%, 72%로 X세대 3명 중 2명 이상이 결혼과 자녀는 필수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통계청의 국민 전체(13세 이상)의 결혼 및 자녀 인식 대비 높은 수치이다.
- 한편 X세대의 혼인율은 76%로 4명 중 3명이 기혼이었고, 기혼가구 기준 대다수(91%)는 자녀가 있었다.

[그림] X세대의 결혼/자녀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그림] X세대 혼인율과 자녀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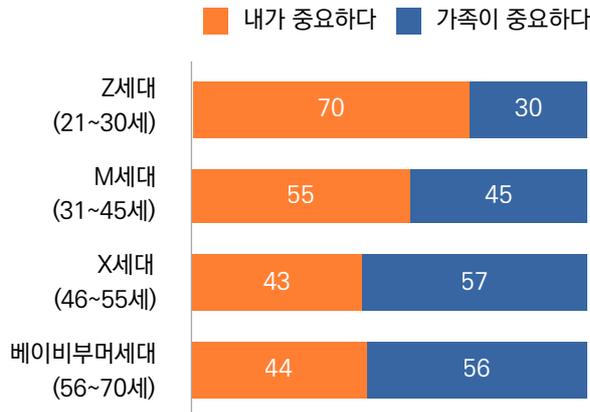


※출처: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국민 전체: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2024.11.12.  
\*\*5점 척도(‘국민 전체’ 조사에서 ‘결혼 인식’은 5점 척도, ‘자녀 인식’은 4점 척도임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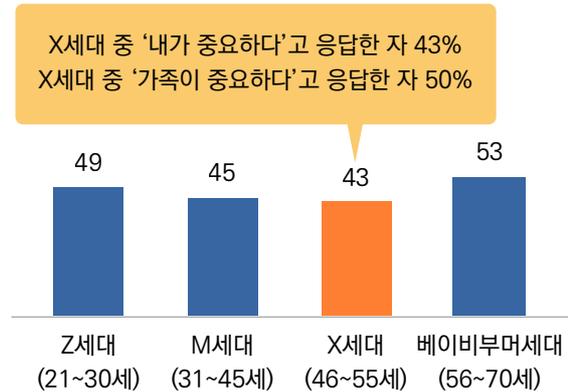
## ‘가족 중요’, 전 세대 중 X세대가 가장 높다

- 가족에 대한 애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가족 사이에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 세대를 통틀어 X세대(57%)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베이비부머세대’ 56%, ‘M세대’ 45%로 나타났다.
- 삶에 대한 만족도는 X세대가 43%로 가장 낮았는데 눈에 띄는 점은 X세대 중 ‘가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자에게서 ‘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자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나와 가족의 중요도 (세대별, %)



[그림] 삶에 대한 만족도 (세대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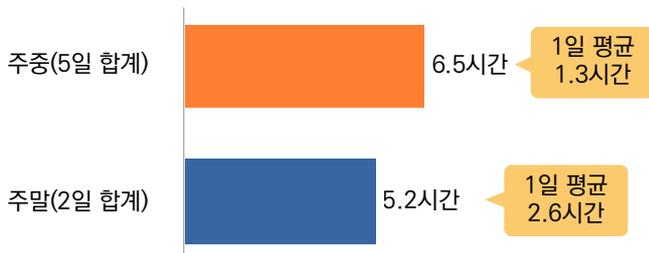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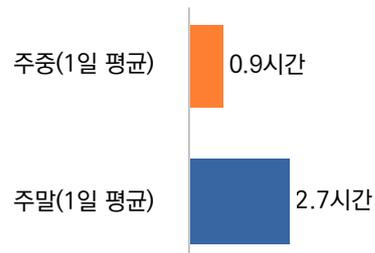
## X세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주중 하루 평균 1시간도 채 안돼!

- X세대들이 직장 일 혹은 가사/육아 등을 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얼마나 될까? X세대의 여가시간은 주중(5일 합계) 평균 총 6.5시간으로 주중 1일로 환산하면 1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주말(2일 합계)은 5.2시간으로 주말 1일 기준 3시간에도 못 미쳤다.
- 이번에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주중(1일 평균) 0.9시간으로 1시간 미만이었으며, 주말(1일 평균) 2.7시간으로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절대적 양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관계도 소원해지기 마련이기에 가족회의, 가정 예배, 취미 함께하기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녀와의 시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X세대의 여가시간



[그림] X세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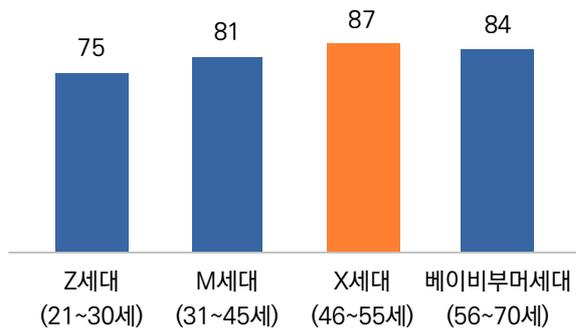
# 04

## [X세대의 직장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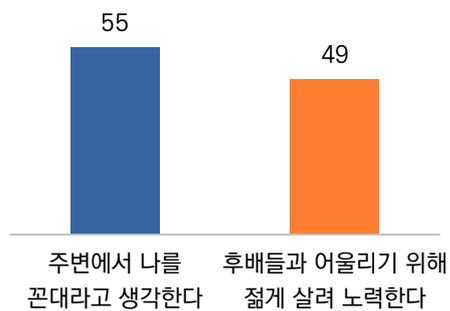
### 직장에서 타 세대와 세대차이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 X세대!

- 직장인으로서 X세대는 MZ세대 등 타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먼저 직장 내 세대차이를 느끼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커리어의 정점 위치에 있는 X세대(87%)는 베이비부머세대(84%)보다도 타 세대에 대해 더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세대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인 것이다.
- 다만 X세대의 절반 이상(55%)은 '주변에서 나를 낚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후배 MZ세대와의 화합을 위해 '젊게 살려는 노력'(49%) 또한 기울이고 있었다.

[그림] 직장 내 타 세대와의 세대차이 체감 여부 (경제활동자, 세대별, '세대차이 느낌' 비율\*, %)



[그림] X세대의 직장생활 관련 인식 (동의율\*\*, %)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2점 척도

\*\*5점 척도(낚대 동의율: 보통+매우/약간 동의, 젊게 살기 위한 노력 비율: 매우+약간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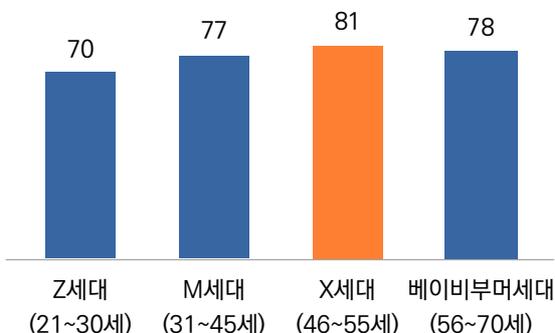
# 05

## [X세대의 건강과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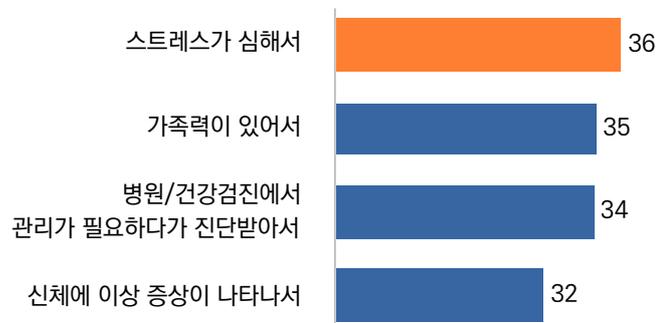
### X세대 대부분(81%), 내 건강이 걱정된다!

-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적 노화, 질병 등의 요인으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번에는 세대별 건강 우려 비율을 살펴본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비율은 X세대가 81%로 타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건강 우려 이유는 '스트레스', '가족력', '병원에서 건강 관리 필요 진단'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그림] 건강 우려 비율 (세대별, '그렇다' 비율\*, %)



[그림] X세대의 건강 우려 이유 (X세대 전체, 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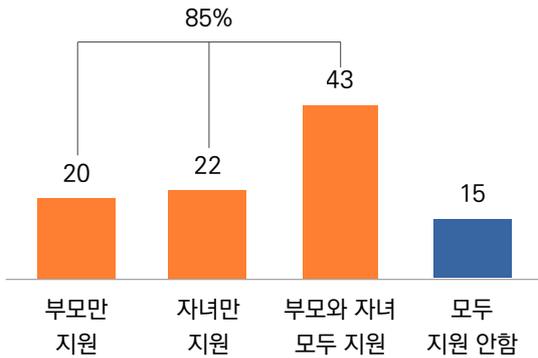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2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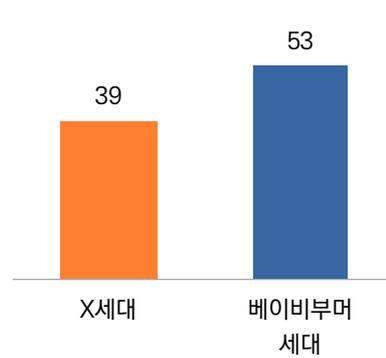
## X세대의 43%, 현재 부모와 자녀 동시에 부양중!

- 가족(자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X세대의 대부분(85%)은 자녀 또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자녀와 부모 동시에 이중 부양하는 X세대는 43%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 X세대의 노후준비율은 39%로 10명 중 4명만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모 또는 자녀', '부모+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비율이 85%에 달한 것으로 봤을 때, 가족부양 부담 요인 등으로 본인의 노후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X세대의 가족부양(경제적 지원) 현황 (%)



[그림] X세대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율\* (%)



※출처 : 우리금융지주, 2024 우리금융 트렌드 보고서\_X세대의 생활, 2024.12. (전국 만 20~69세 국민 10,000명, 온라인 조사, 2024.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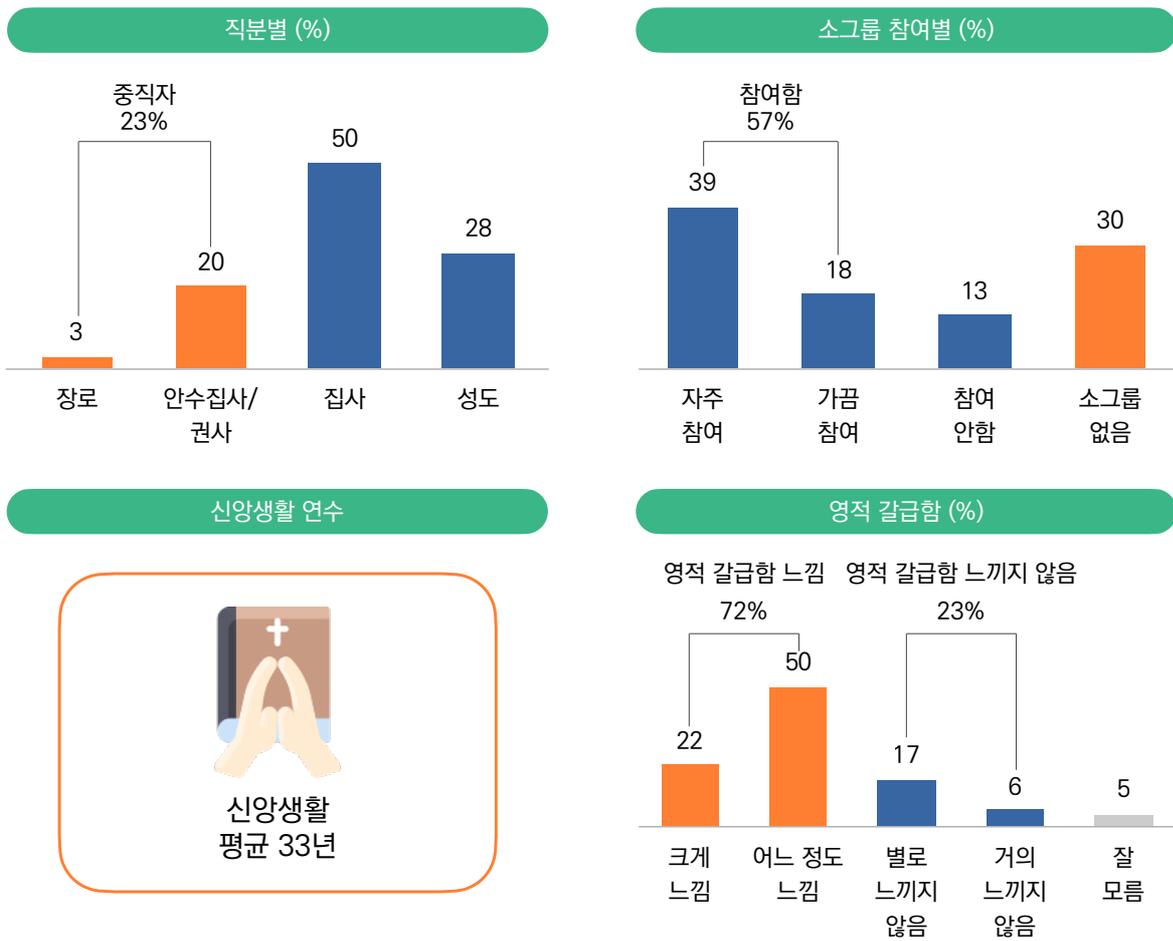
\*세대별 노후 준비 시작한 나이를 질문하여 준비 여부 확인

# 06

## [X세대 교회 출석자/목회자 실태] 교회 내 X세대 10명 중 7명, 현재 영적 갈급함 느낀다!

- 한국교회트렌드 2025 조사 결과에서 X세대 교회출석자의 신앙 특성을 일부 살펴본다. 직분별로는 집사가 절반(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도 28%, 장로 등 중직자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 소그룹 참여의 경우 과반(57%)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소그룹이 없거나(30%) 참여 안 하는 비율(13%)도 43%로 적지 않았다.
- X세대 교회 출석자의 '평균 신앙생활 연수'는 33년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72%)에 달했다.

[그림] X세대 교회 출석자 전반적 특성 (교회출석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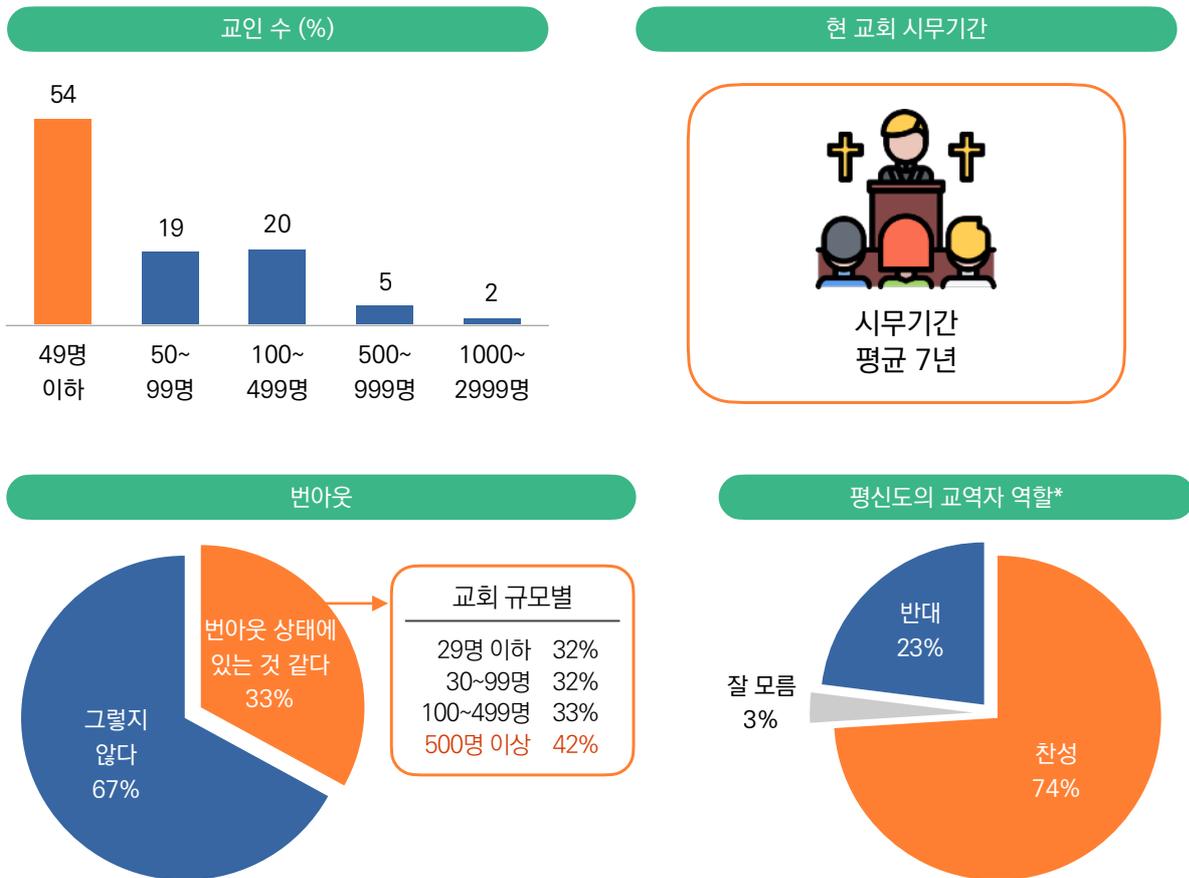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4.06.(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4.~06.03.)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은 '번아웃 상태'!

- 70년대생 담임목사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시무하는 교회는 절반 이상(54%)이 49명 이하인 소형교회였고, 현 교회 시무기간은 평균 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앞서 직장인들의 퇴사 고민 사유 중 상위권에 랭크됐던 '번아웃'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33%)은 현재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42%)인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경우 번아웃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
- 또 다른 한국교회의 문제로 부교역자의 구인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에 대한 X세대 목회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4명 중 3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신도 사역에 대해 상당히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세대 목회자 전반적 특성 (담임목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4.06.(전국의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3.~06.03.)

\*4점 척도

## 이번호 요약

### 1. '가족 중요', 전 세대 중 X세대가 가장 높다!

- '자기 자신과 가족 사이에 중요도'를 묻은 결과, '가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 세대를 통틀어 X세대(5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베이비부머세대' 56%, 'M세대' 45% 였다.

### 2. X세대의 43%, 현재 부모와 자녀 동시에 부양중!

-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X세대의 대부분(85%)은 자녀 또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X세대는 43%로 절반 가까이 됐다.

### 3. 세대 차이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 X세대!

- 직장인으로서 X세대는 MZ세대 등 타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직장 내 타세대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를 묻은 결과, 커리어의 정점 위치에 있는 X세대(87%)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 조사됐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리포트] 낀 세대(X 세대)의 자존감을 높이자 (조성일, 포스코경영연구원)

## 관련 성경 구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13:8~9)

## 목회 적용점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사회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X세대(1970년대생)는 전 세대 중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고(가족이 중요함 57%),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비율이 43%에 달하며, 직장에서는 세대 간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87%)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목회적 접근은 어떠해야 할까?

먼저 '다른 세대에 대해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가 X세대, 즉 1970년대생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 작은 사회인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갈등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교회는 X세대가 MZ 등 다른 세대와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필자의 경험을 들자면 일전에 새가족부 도우미로 섬겼을 때,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었는데, 한 팀으로 교회 행사를 진행하고, 때론 외부에서 식사 교제, 삶 나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이 서로간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다양한 세대가 혼재한 공동체적 사역이라 하겠다. 교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 행사 기획/준비 등의 미션 부여를 권한다.

또한 X세대는 전 세대 중 가장 핵심적인 경제활동층이고 가족을 중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소홀하기 쉽다. 이들의 10명 중 7명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과 경제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 등을 제안한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2.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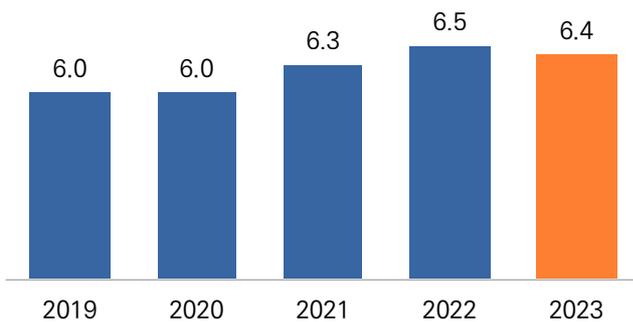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2019년 이래 4년 만에 하락 전환!

-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담아 매년 통계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로 발간하는데 최근 업데이트 자료가 나와 이를 살펴본다.
-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0~10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만족도는 2019년 6.0점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정체, 상승을 이어가다가 4년만에 하락하였다.

[그림] 삶의 만족도 (일반국민,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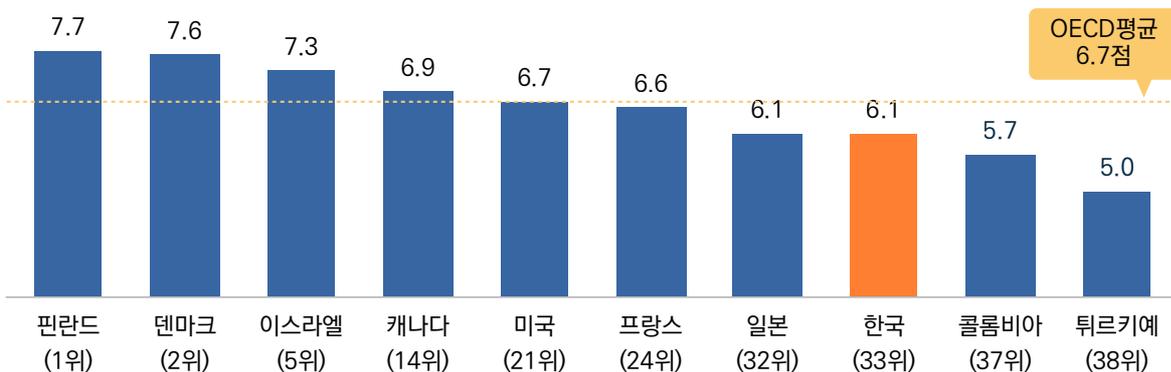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2024, 2025.02.24.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

- 이번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유엔(UN, SDSN)의 세계행복보고서(2024)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한국인의 지난 3년치(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1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랭크됐으며, OECD 평균(6.7점)보다도 낮았다.
-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1위)로 7.7점이었고, 미국(21위) 6.7점, 일본은 한국보다 한 계단 높은 32위에 랭크됐다.

[그림] 삶의 만족도 비교 : 한국 vs OECD 주요국 평균 (38개국 기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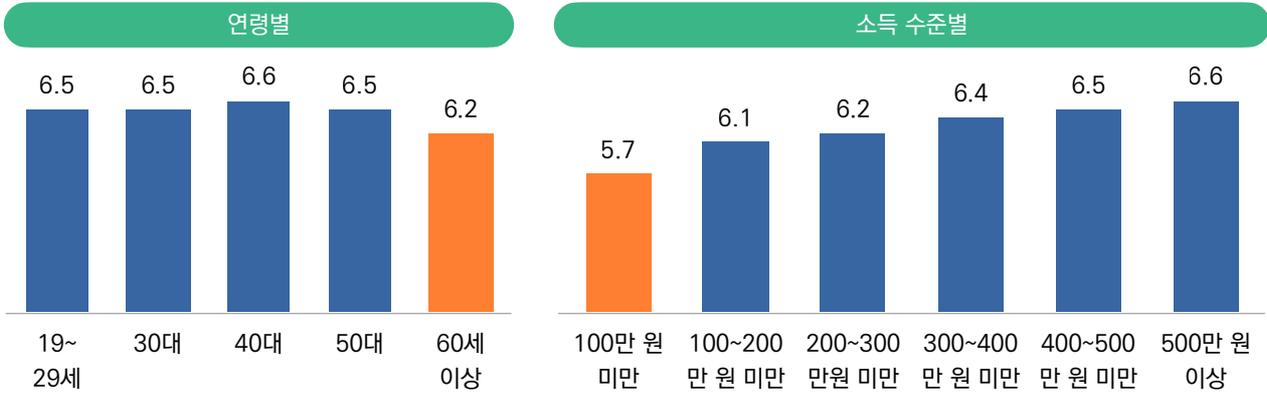


※출처 : UN 산하 자문기구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2024 세계 행복보고서, 2024.03.20.

## 연령 높을수록, 소득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떨어져!

- 삶의 만족도는 연령과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6.5점), 40대(6.6점)의 만족도보다 60대 이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00만 원 미만은 5.7점인데 반해 500만 원 이상은 6.6점으로 두 집단 간 0.9점이나 격차가 벌어졌다.

[그림] 연령/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2023, 일반국민, 점)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 삶의 질 2024, 2025.02.24.



## [OECD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비교]

### 한국의 저소득 가구, OECD 주요 국가보다 사회안전망 취약

-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을 경우 빈곤의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견줘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령층(18~64세)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10%가 실업급여 같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기여형 급여) 수급률이 7%로 14개 조사국 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저소득 가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다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만큼의 노동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높다는 얘기도.

[그림] 기여형 급여\* 수급 비율 (OECD 14개국, 노동연령층 가구 소득 하위 10%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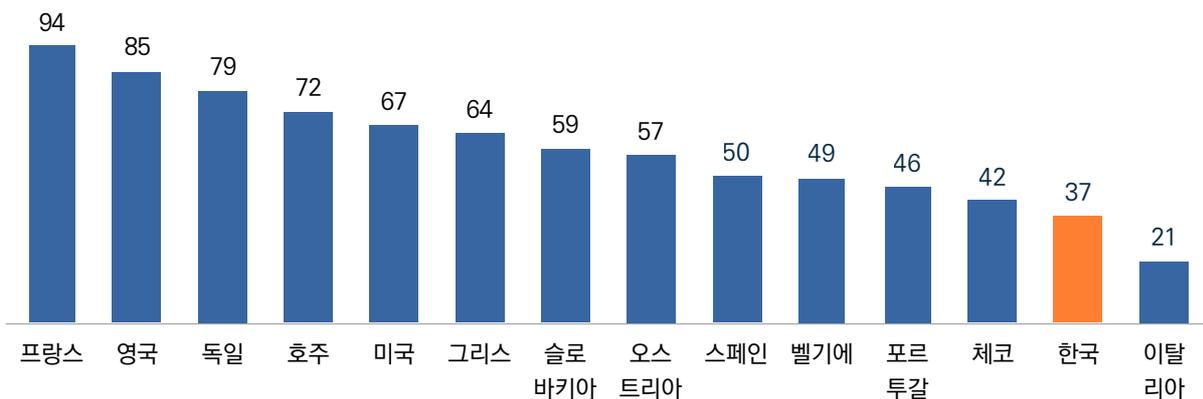
※출처 : 한겨레, '기여형 급여' 수령 저소득가구 7%...실업·질병 땀 '빈곤 수렁', 2025.01.1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7800.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7800.html))

\*기여형급여 :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장애연금(국민연금), 휴업급여(산재보험))

### 한국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가구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자산조사형 급여'라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연령층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37%로 14개 조사국 중 최하위권인 13위였다. '기여형 급여' 같은 사회보험과 자산조사형 급여 같은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의 두 축인데 한국은 양쪽 제도 모두에서 보장 범위가 낮아, 여전히 많은 저소득 가구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림] 자산조사형 급여\* 수급 비율 (OECD 14개국, 노동연령층 가구 소득 하위 10% 대상, %)



※출처 : 한겨레, '기여형 급여' 수령 저소득가구 7%...실업·질병 땀 '빈곤 수렁', 2025.01.1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7800.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7800.html))

\*자산조사형 급여 : 가구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생계지원제도 등)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13호 \(2025년 2월 4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부자 재산 규모 인식 등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4호 \(2025년 2월 4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신뢰도 등

## 사회 일반

### [서민 때린 '떡거리 인플레이션'...소득하위 20% 식비, 5년새 40% 꺾충](#)

연합뉴스\_2025.3.2.

### [\[팩트체크\] 경기도 살면 인생의 20%를 지하철서 보낸다?](#)

연합뉴스\_2025.2.28.

### ["피싱 사기 조심, 1인 평균 810만원 피해"](#)

동아일보\_2025.2.28.

### [한국인, 일 평균 유튜브 2시간 시청...네카오는 합쳐도 절반 안돼](#)

연합뉴스\_2025.3.2.

###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 50.8점...38.1%는 "의미 모른다"](#)

연합뉴스\_2025.2.27.

### [9년만에 아이ולם 커졌다...'0.7명대' 합계출산율도 반등](#)

연합뉴스\_2025.2.26.

### [한국 인구 100명 중 5명 외국인...역대 최대 경신](#)

연합뉴스\_2025.3.3.

### [두려운 한국 미래 "2050년 돌봄필요노인 1위"...곳간 6년뒤 바닥](#)

중앙일보\_2025.2.26.

### [서울 일하는 65세 이상 시민 44%...“노인” 연령은 72.6세 적합](#)

동아일보\_2025.3.3.

### ["시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10대들 상담창구라는데...](#)

국민일보\_2025.2.26.

### ["차탄핵 갈등비용 1740兆" 전문가들 "계엄 비용은 더 막대할 것"](#)

조선일보\_2025.3.4.

## 청년 · 청소년

### [박사까지 났는데 '백수' 30%, 역대 최고...'청년 박사' 절반 무직](#)

연합뉴스\_2025.3.2.

### ["챗GPT야 신년 운세 봐줘" 챗GPT가 역술가·심리상담가까지...MZ세대의 'AI' 활용법](#)

경향신문\_2025.3.3.

### [컵라면 하나·젤리가 하루 식사... 초등생까지 '뼈말라' 강박](#)

국민일보\_2025.3.3.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팩트체크\] 한국 대기업 신입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연합뉴스\_2025.2.27.

[2023년 평균 월급 363만원...물가보다 덜 올라, 집계사상 처음](#)

중앙일보\_2025.2.25.

["직장인 10명 중 6명, 승진·배치에 남녀차별 있다고 생각"](#)

연합뉴스\_2025.3.2.

["직장인 우울증 원인 1위는 남녀노소 불문 '직장 스트레스'"](#)

연합뉴스\_2025.2.26.

["내 나이가 어때서"... 코스닥 CEO, 60대 이상이 49% 최대](#)

조선일보\_2025.3.4.

## 국제 · 환경

[마트 계산만 해도 연봉 7300만원... 美 청년 "비싼 돈 내고 대학 왜 가요?"](#)

조선일보\_2025.3.4.

## 건강

['이것' 2주만 끊어도... 항우울제보다 우울증에 효과, 주의력 10년 젊어진다](#)

조선일보\_2025.2.28.

[젊은 마인드가 '블로초'...쌍둥이도 동안이 더 오래 살아](#)

중앙일보\_2025.2.22.

[귀찮아도 하루 딱 5분... '이것' 했을 때 치매 위험 41% 낮았다](#)

조선일보\_2025.3.3.

[자살 환자 살펴보니, 우울증보다 이 정신질환이 2배 더 많았다](#)

한국일보\_2025.3.3.

## 기독교 · 종교

[국민 74% "나와 정치 성향 다른 사람, 위험한 존재"](#)

국민일보\_2025.2.27.

[마약중독자 품는 한국교회... 치유공동체·단약 모임 지원](#)

국민일보\_2025.3.3.

[한국교회 환부에 현미경... '종합검진' 해보니](#)

국민일보\_2025.2.28.

## 트렌드

["MZ 비켜" 新소비권력 된 GG... 2030 유행도 너끈히 소화](#)

국민일보\_2025.2.25.

# 후원

## 후원 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벨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광주양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산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목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앙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영주제일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울산다운공동체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산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아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온커넥터(주)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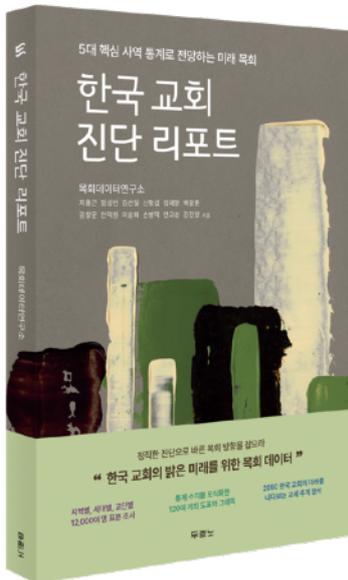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연구소 소식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 Outward

예수의 심김  
봉사

###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 목회데이터연구소

##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두란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 1)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13:30~18:00
- 2)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 3)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리더
- 4) 참가비 : 25,000원 → 20,000(20%할인)
- 5) 할인가한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까지
- 6) 문의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세미나 등록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을 증정합니다.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 목회 데이터의 전략적 분석

**Upward** Upward: 리더십  
건강한 교회의 핵심 과제

**Forward** Forward: 목회적 돌봄  
반려된 삶을 위한 양육 교육

**Inward** Inward: 상담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Outward: 선교  
예수의 사랑 봉사

**Onward** Onward: 교회성장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지역, 세력, 교단별, 교인별, 통계수치를 도출한 120여 개의 도표와 그래프

2050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교세추계 분석

발행/장소: 3월 20일(목, 1-day) 13:30~18:00,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강사: 황사연, 지용근, 안덕원, 신형식, 이성미, 손병덕, 안효성  
요금: 25,000원 → 할인가 20,000원 \*교세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증정  
내용: 1강. 통계자료 읽기, 2강. 양역별 키워드 읽기, 3강. 통합 일과의 흐름  
발행/상장: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biblecollege.or.kr  
신청문의: [02-2078-3437]

\*상위세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